

흑인 여성감독 첫 경쟁부문... '달라진 칸'

〈'아틀란티크' 연출자 마티 마옴〉

남녀 성비 노력...소의 지적 여전
노동문제 등 시대의 목소리 다양
엘튼 존-에저튼 '즉흥 공연' 화제

‘올림’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시대를 담고, 사회와 소통하는 영화계 고유의 역할이 올해 칸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15일 개막한(이하 한국시간) 제72회 칸 국제영화제가 축제의 첫 주막을 보냈다. 넷플릭스 영화 초청 거부와 성평등 이슈 등 출발부터 뜨거웠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최고 권위의 영화 축제답게 다양한 시선이 나온다.

초반 관심은 개막작에 쏠렸다. 미국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집 자무시 감독의 신작 '더 테드 폰트 다이아'. 조용한 마을에 창궐한 좀비 이야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사회를 그렸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7일자 뉴욕타임스는 "좀비 소재로 세상의 종말을 논한다"고 평했다. 칸 국제영화제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아예 "안티 트럼프 영화이자,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저조해 영화계 공식 소식지인 스



15일(한국시간) 개막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가 축제의 첫 주막을 보내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사진은 영화 '소리 위 미스트 유'로 세 번째 황금종려상을 노리는 켈 로치 감독(위), 영화 '로켓맨'의 실존 모델인 영국 팝스타 엘튼 존(아래 왼쪽)과 극중 그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테런 에저튼. 칸프랑스/AP·뉴시스

크린데일리의 평점은 2.2점에 그쳤다. 이 파고든다. 택배 일로 생계를 꾸리는 세 번째 황금종려상을 노리는 영국의 거장 켈 로치 감독은 '소리 위 미스트 유'에서 그동안 천착해온 노동문제를 더 깊

라는 평가가 나온다. 뜻밖의 화제를 모은 주인공은 영국 팝스타 엘튼 존이었다. 약물중독과 성 정체성으로 방황한 젊은 시절을 다룬 '로켓맨'을 비경쟁부문에서 소개한 그는 17일 상영 직후 주연배우 테런 에저튼과 칸 해변에서 즉흥 공연을 벌였다. "환상적인 만큼 잘 만든 뮤지컬 드라마"(베라 이어티)라는 평가 속에 제작자이자 동성남편인 데이비드 퍼니스와 포토콜 행사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칸의 상징적 장면은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을 비롯해 82명의 여성 영화관계자들이 레드카펫에 동시에 올라 차별 철폐를 촉구한 '성평등 선언'이다. 때문에 올해 칸이 이에 어떻게 응답할지 시선을 모았다.

올해 칸은 경쟁부문 심사위원의 성비를 남녀 4명으로 맞췄다. 경쟁부문 상영작 21편 중 여성감독의 영화도 지난해보다 한 편 늘어 4편이 초청됐다. 특히 '아틀란티크'의 연출자인 세네갈 출신 마티 마옴은 첫 경쟁부문 초청 흑인 여성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개막 기자회견부터 관련 지적이 쏟아지자 티에리 프레모 위원장은 "초청 여부는 감독의 성별이 아니라 성과에 달렸다"며 "오직 언론만 50%를 여성영화로 채우라 요구한다"고 말했다.

칸프랑스 |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비인두암 치료 김우빈 근황 공개



김우빈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우빈의 근황이 전해졌다. 김우빈이 18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그를 목격한 한 팬은 "김우빈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날 김우빈은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조인성, 배성우, 이광수, 엑스디오(도경수)등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미, 라디오 생방송 핑크사과



강유미

개그우먼 강유미가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유미는 1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의 불찰로 방송 핑크를 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유미는 이날 KBS 라디오 '김성완의 시사夜'에 출연할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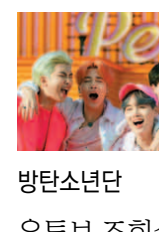
하림, 24일 폴란드서 둘만의 결혼식



하림

가수 하림(최현우·43)이 24일 폴란드에서 결혼한다. 19일 하림은 자신이 진행한 EBS FM '일요음악여행 세계음악, 하림입니다'를 통해 결혼 사실을 직접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분, 저 결혼한다"면서 "폴란드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의 예비신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여성으로 한 전시회에서 처음 만난 후 2년 정도 연애했다.

방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3억뷰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3억 뷰를 돌파했다. 19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4월 12일 발표된 미니음반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전날 오후 12시47분경 조회수 3억 뷰를 넘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10번째 3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며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소지섭-조은정 열애... "이 커플 찬성이오"

17세 연하 아나운서 출신 리포터 대중들은 벌써부터 결혼 궁금중

17일 배우 소지섭(42)이 17살 연하의 아나운서 출신 리포터 조은정과 교제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궁금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지섭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어서 더욱 그렇다. 소지섭은 2014년 게임전문채널 OGN(온게임넷)의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해



소지섭

조은정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진행을 맡아 '롤 여신'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조은정과 1년째 교제 중이다. 두 사람은 조은정

이 퇴사 후 프리랜서로 나선 지난해 3월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각각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주인공과 리포터로서 인연을 맺고 이후 지인들과 모임에서 재회하며 사랑을 쌓아왔다.

소지섭은 1995년 데뷔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점에서 결혼을 기대하는 시선을 받고 있다. 그가 적지 않은 나이이며, 조은정이 올해 초 활동을 정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결혼 준비를 위한 수순인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소지섭의 소속사 피프티원케이 관계자

는 19일 "아직 결혼을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면서도 관련 계획이 전혀 없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아 여론을 남겼다. 관계자는 소지섭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서로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그만큼 조은정과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소지섭은 소속사를 통해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면서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며,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조은정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부디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악동' DJ DOC, 9년 만에 돌아온다

내달 초 10곡 담은 정규 8집 발표
파워풀한 씬머송... "제2의 런투유"



'드디어 나온다.' '악동그룹' DJ DOC(김창열·이하늘·정재용)가 9년 만에 다음달 정규 8집을 발표한다. DJ DOC의 새 앨범은 2010년 정규 7집 '풍류' 이후 처음이다. 2년 전부터 새 앨범에 수록할 곡들을 작업해오다 멤버들의 결혼과 출산 등으로 지연됐다.

이들은 이번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초 발표를 목표로 최근 마스터 작업에 한창이다. 이전 긴 공백기에 디지털 싱글이나 동료 가수와 콜라보레이션 등 형태로 1~2곡만 내놓은 것과 달리 10곡이 담긴 정규 앨범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물론 가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앨범마다 경쾌하고 흥겨운 멜로디와 직설적인 가사를 담아낸 이들은 이번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이슈 등에 대한 패



있는 노랫말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랜 시간 준비했고, 앨범 발표 시기가 여름시즌까지 염두에 둔 만큼 '나 이런 사람이야'나 '런투유' 등을 잇는 파워풀한 멜로디가 물론 풍기는 분위기의 곡을 타이트로 정했다. 이들의 한 측은은 19일 "최근 타이틀곡을 결정했다. 멜로디나 가사로 DJ DOC만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며 "제2의 '런투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DJ DOC는 새 앨범 발표와 함께 각종 음악프로그램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데뷔 26년차의 내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예능 아이콘' 한혜진, 채널A '우리집' 합류

'나혼자 산다'와는 다른 매력 발산
김희철·김신영과 '동갑 케미' 뽐내

모델 출신 방송인 한혜진이 새로운 '예능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널A '우리집에 왜 왔니'를 비롯한 여러 예능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면서다. 관찰 리얼리티부터 연예 상담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시원스러운 성격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덕분에 각 방송사의 '예능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혜진은 19일 방송을 시작한 '우리집에 왜 왔니'의 진행자로 합류했다.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게스트의 집에 놀러가 홈 파티를 즐기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혜진은 까칠한 매력으로 웃음을 줬던 MBC '나 혼자 산다'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냈다. 함께 진행을 맡은 김희철, 김신영과 1983년생 '동갑내기 케미스트리'를 발산했다.

한혜진은 앞서 tvN '인생술집', KBS조이 '연애의 참견' 시리즈, 엠넷 '더 콘대 라이브' 등으로도 진행자로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2017년 본격적으로 방송에 나선 지



2년 만의 성과다. 유연함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연애상담, 뷰티, 토크, 배리어티 등 포맷을 가리지 않고 도전한 덕분이다. 대표작인 '나 혼자 산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활로를 뚫는 데 힘을 쏟은 부지런함이 빛을 발한 셈이다.

한혜진은 앞으로 더 폭넓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6월17일 새뮤얼 합류하는 tvN '썸네우어' 시즌2를 비롯해 KBS 2TV의 새 예능프로그램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25일에는 KBS 2TV '대화의 회열'에 게스트로 등장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